

■ KAA NEWS

1. 방송위, 케이블채널 15개 신규승인

방송위원회는 15개의 케이블TV 신규채널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 케이블TV 채널은 기존 29개 채널에 새로 승인된 15개 채널을 합쳐 모두 44개가 됐다. 30개 신규채널 신청사업자 가운데 10개 이내에서 사업자를 승인할 것이라는 당초 방침보다 5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케이블TV 사업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굳이 신규채널 허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규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5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할 계획이다. 새로 승인된 케이블TV 신규채널 사업자 명단과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이드채널(프로그램 정보안내), SBS(축구), 웨더뉴스채널(기상), 이채널(인터넷·정보통신), 센추리TV(환경·요리), 웨딩텔레비전네트워크(결혼), 뮤직네트워크(요리), DIY네트워크(생활교육), 39쇼핑(패션), 월드이벤트TV(이벤트), 매일경제TV(증권), 온게임네트워크(게임), 와우티브이(증권·유료), 코오롱스포렉스(코미디),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연예정보)

2. 시청률조사 검증협의회 발족

국내 시청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청률 조사검증협의회'가 공식 발족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박권상 KBS사장, 노성대 MBC사장, 윤세영 SBS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률 조사검증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족한 검증협의회는 방송사 편성팀(한윤희 MBC 차장, 김성환 KBS 차장, 이철호 SBS 차장)과 광고회사 매체기획팀(박정래 제일기획 국장, 최도영 엘지애드 국장, 김민석 코래드 국장) 외에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정신 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월 1회의 정기회의, 사안별 임시회의, 검증평가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시청률 조사의 기본원칙 및 방향제시, 조사과정의 객관성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광고업협회 김태환 전무이사 취임

한국광고업협회 사무국 상근임원에 김태환 전무이사가 취임했다. 김태환 전무이사는 1974년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조사부에서 광고업무를 시작한 이래 오리콤, 크리월드애드, 맥켄 에릭슨, 크리콤, 선연 등 광고회사에서 임원 등을 역임한 정통 광고인. 협회는 신임 김태환 전무이사의 광고회사 및 외국계 광고회사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회원 광고회사들의 권익 보호와 광고업협회의 국제교류 등 협회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방송위,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 위촉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9명과 시청자불만처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9명은 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남상조(공인회계사), 서연호(고려대 교수), 김광일(전 KBS인력개발센터 국장), 차명희(전 여성특위 사무처장), 김영호(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문성근(영화배우), 주동황(광운대 교수), 안상운(변호사)씨 등이다. 또 시청자불만처리위원 7명은 임형두 방송위원을 위원장으로 임영숙(대한매일 논설위원), 강영구(방송위원), 이경숙(방송위원), 최호룡(전 MBC 미디어텍 사장), 양삼승(변호사), 안정임(서울여대 교수)씨 등이다.

5.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실시

동아제약은 오는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제3회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실시한다.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건강한 젊은이와 함께 하는 박카스'를 위해 동아제약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하고 있는 국토종단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태평양으로의 관문인 부산에서 출발해 진해, 마산, 독립기념관, 영종도국제공항을 거쳐 2002년 월드컵 개막식 개최 장소인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을 최종 도착지로 설계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된 희망자 모집에는 국내는 물론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까지 접수, 폭발적인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들 가운데 144명을 최종 선발, 589.5Km 대장정의 국토종단을 함께 할 예정이다.

6. 칠성사이다 13년만에 BI 교체

롯데칠성음료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기업상을 구축하기 위해 칠성사이다 브랜드마크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새로운 BI는 3D 타입의 별과 칠성사이다 브랜드네임의 강력한 조화로 브랜드의 역동성과 신선함을 표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밤하늘 거대한 은하수 무리 속에 찬란히 빛나는 별을 연상시키듯 칠성사이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서 21세기에도 최정상의 위치를 지켜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칠성사이다는 이번 BI 교체를 계기로 대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거듭 태어나 대한민국 대표음료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적인 음료로서의 칠성사이다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7. 전경련, 홍보 임직원 명부 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홍보 조직의 임직원 현황이 담긴 한국 주요기업 홍보 네트워크를 발간, 배포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업이 주요 기업의 홍보맨들을 조직화해서 재계 차원의 공동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 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업간 홍보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 네트워크 명부에는 전경련 300여개 회원사 홍보담당 임직

원 1,200여명의 전화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 있다. 전경련은 명부 발간을 계기로 회원사 홍보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인터넷 등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선진 홍보기법 모색을 위한 홍보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8. 제일기획, 대학생광고대상 시상식 개최

제일기획은 지난 10일 제21회 제일기획 대학생광고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제21회 대학생광고대상에는 기획서부문 93편, 작품 부문 2,727편 등 총 2,820편이 출품되었으며, 최종 75편의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80편이 접수된 인터넷 광고부문은 응모작 대부분이 실제 광고로 바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제일기획 대학생광고대상은 전문광고회사가 실시한 최초의 광고상으로 지난 78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동안 광고인력의 저변확대, 우수인력의 조기발굴과 육성 그리고 광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는 등 국내 광고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대상을 통해 지금까지 총 600명 이상의 광고신인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제8회 대상수상자인 제일기획 제작본부의 박웅현 국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상자들은 제일기획에 입사하기도 했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이번 제일기획 광고대상의 특징은 참가자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라 설명하고, "응모자 DB를 구축, 제일기획에서 실시되는 각종 그룹 인터뷰나 사전광고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등의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 전광방송광고협회 출범

국내 전광판 관련기업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전광광고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로 협회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는 지난 4월 7일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송법 전광방송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IMF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옥외광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 김현동 회장을 3년간 연임키로 결정했다. 또 전광방송협회는 임기가 만료된 부회장에 임병욱 타-프 대표를 선임하고, 디지털조선애드, 광보당, 우주사, 한국싸인, 두성콤, 애드코, 레인보우, 봉오전자공업 등 8개사 대표를 협회 이사로 선임했다.

10. 상암기획, 연구논문집 발행

상암기획은 직원들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99년 하반기 연구논문집을 발행했다. 96년 상반기

부터 매년 2회 발행되는 연구논문집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논문집에는 인터넷, 배너광고·인터넷 광고가 매스미디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 광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를 포함한 각 분야별 연구논문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11. 주소 이전 안내

- ☆ 모토로라반도체통신이 모토로라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주소는 (우)135-080 강남구 역삼동 679-4 로담코타워 7~11층, 전화 3466-5114.

- ☆ 다이아몬드베이츠가 본사 사옥을 이전했다.
이전 주소는 (우)100-391 중구 장충동 1가 31-5 덕양빌딩, 전화 739-2511.

- ☆ 정커뮤니케이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4 로크빌딩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전화 3445-9390.

- ☆ 맥켄에릭슨과 유니버설맥켄은 종로구 연지동 270 연강빌딩 6층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전화 745-6151.

12. 신규 광고주 영입 소식

휘닉스컴: 동아오츠카 스테비아·도요타, 실버블렛: 한빛은행, MBC애드컴: 후이즈(Whois), 금강기획: 라이코스, 정커뮤니케이션: 신동아화재보험·캠브리지멤버스·카오스트레이드·마이 디지털·지오라인, 오리콤: 현대산업개발, 한컴: 디지털조선